

콜로키움25-01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제1차 콜로키움

: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제1차 콜로키움**
: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 일시: 2025년 4월 17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시간	내용	비고
10:00~10:10	발표자 및 참석자 소개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 연구센터 센터장)
10:10~11:00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00~12:00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제1차 콜로키움
: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콜로키움 25-01

제1절 OECD 국가의 이민자 추이와 특징 1

1. 국가별 이민자 추이 1

제2절 이민자와 선주민의 노동시장 비교분석 10

1. 경제활동참가율 10

2. 고용률 13

3. 실업률 18

4. 한국의 이민자 경제활동실태 21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24

표 목차

〈표 1〉 OECD 국가별 외국인(foreign) 추이	2
〈표 2〉 OECD 국가별 해외출생(foreign-born) 인구 추이	4
〈표 3〉 OECD 국가별 외국인 유입 추이(inflows of foreign population)	6
〈표 4〉 OECD 유럽 국가별 이민자(immigration)의 연령별 분포	8
〈표 5〉 OECD 국가별 선주민과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전체) ..	10
〈표 6〉 OECD 국가별 선주민과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여성) ..	12
〈표 7〉 OECD 국가별 선주민과 이민자의 고용률 격차(전체)	13
〈표 8〉 OECD 국가별 선주민과 이민자의 고용률 격차(여성)	15
〈표 9〉 OECD 국가별 선주민과 이민자의 고용률 격차(저학력)	16
〈표 10〉 OECD 국가별 선주민과 이민자의 고용률 격차(고학력)	17
〈표 11〉 OECD 국가별 선주민과 이민자의 실업률 격차(전체)	19
〈표 12〉 OECD 국가별 선주민과 이민자의 실업률 격차(여성)	20
〈표 13〉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경제활동 실태 비교	22
〈표 14〉 이민자 연령별 고용률 추이	23

그림 목차

[그림 1] OECD 국가별 총인구 대비 외국인(foreign) 비중	3
[그림 2] OECD 국가별 총인구 대비 해외출생(foreign-born) 인구 비중 ..	5
[그림 4] OECD 유럽 국가별 이민자(immigration)의 연령별 분포(2011년) ..	9
[그림 4] OECD 유럽 국가별 이민자(immigration)의 연령별 분포(2019년) ..	9
[그림 5] 이민자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22

OECD 국가의 이민자 경제활동실태와 시사점¹⁾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제1절 OECD 국가의 이민자 추이와 특징

1. 국가별 이민자 추이

국가별로 이민자의 정의는 다르며, OECD 통계에서도 외국인(foreign)과 해외출생(foreign-born) 인구로 구분하여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로 외국인과 해외출생 인구에 대한 정의 또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통계 모두 활용하였다.

OECD 국가별 외국인 규모를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튀르키예, 폴란드,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등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은 2021년 기준 외국인 수는 약 11백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5.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스웨덴 또한 최근 증가율이 이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반면, 라트비아, 헝가리 등 일부 동유럽 국가는 외국인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은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그림 1]은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을 나타낸다. 총인구 증가가 둔화하는 공통적인 추세 속에서 외국인 증가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등은 오히려 외국인 비중이 줄었다.

1) 이 자료는 이규용외(2024), 인구변동과 노동이민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제2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1〉 OECD 국가별 외국인(foreign)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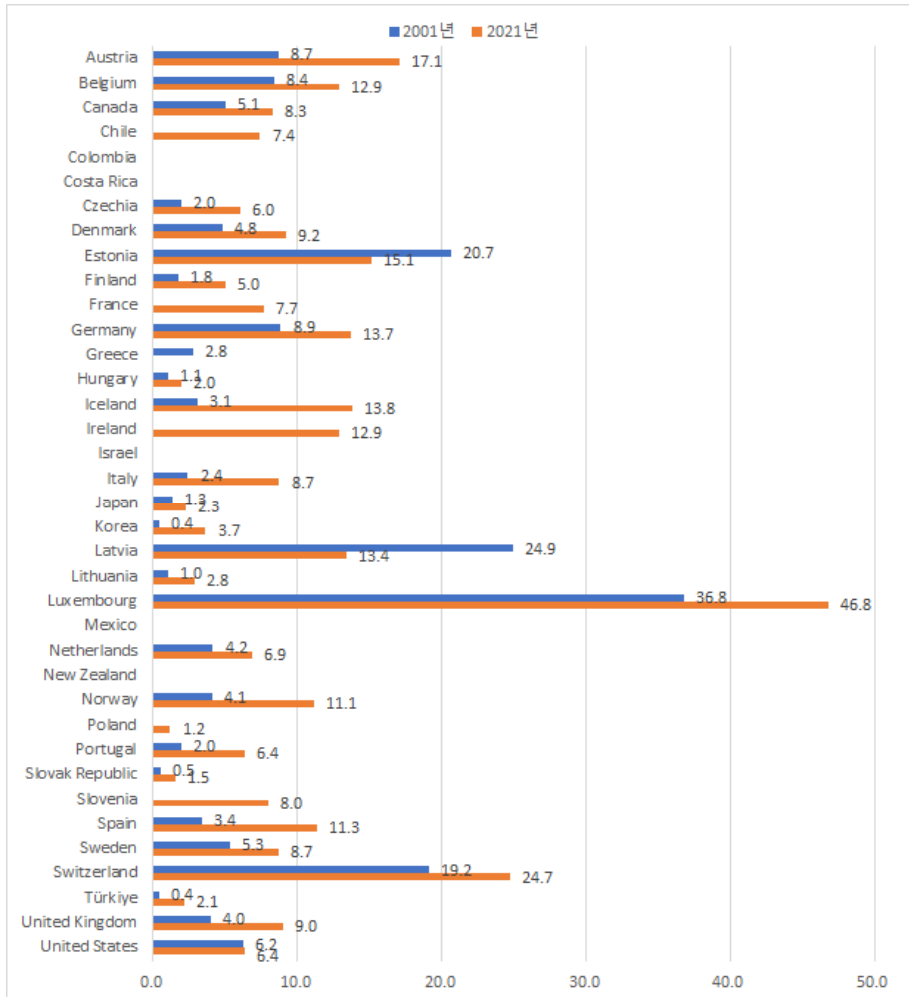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외국인 수		연평균 증감률	
	2001	2021	2001~2011	2011~2021
Australia				
Austria	701.8	1,531.1	2.7	5.3
Belgium	861.7	1,489.2	3.1	2.5
Canada	1,568.6	3,185.3	2.2	5.0
Chile		1,460.0		
Colombia				
Costa Rica				
Czechia	201.0	632.6	7.8	4.1
Denmark	258.6	539.5	3.0	4.5
Estonia	287.1	201.3		
Finland	91.1	278.9	6.3	5.2
France		5,215.2		3.0
Germany	7,296.8	11,432.5	-0.8	5.4
Greece	304.6		10.3	
Hungary	110.0	194.5	6.5	-0.6
Iceland	8.8	51.3	9.1	9.3
Ireland		645.6		0.8
Israel				
Italy	1,379.7	5,171.9	10.9	2.9
Japan	1,686.4	2,887.1	2.4	3.1
Korea	210.2	1,889.5	17.9	5.7
Latvia	582.2	252.4	-5.2	-3.0
Lithuania	35.1	79.9	-3.7	12.8
Luxembourg	162.3	299.4	3.1	3.1
Mexico				
Netherlands	667.8	1,203.0	1.3	4.7
New Zealand				
Norway	184.3	601.6	7.2	5.0
Poland		457.0		19.1
Portugal	207.6	662.1	7.9	4.0
Slovak Republic	28.8	82.1	9.0	1.9
Slovenia		168.7		7.4
Spain	1,370.7	5,368.3	14.5	0.1
Sweden	472.4	905.3	3.0	3.6
Switzerland	1,384.4	2,151.9	2.2	2.3
Türkiye	271.3	1,792.0	-3.5	25.1
United Kingdom	2,342.0	6,013.0	7.4	2.3
United States	17,757.7	21,169.1	2.3	-0.5

자료 : OECD Data Explorer.

[그림 1] OECD 국가별 총인구 대비 외국인(foreign) 비중

(단위 : %)



자료 : OECD Data Explorer.

〈표 2〉는 국가별 해외출생(foreign-born) 인구 규모의 변화를 나타낸다. 외국인 추이와 마찬가지로 해외출생 인구 또한 대부분 국가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외출생 인구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칠레(14.7%), 아이슬란드(7.1%), 핀란드(5.4%), 노르웨이(4.4%)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대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해외출생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2〉 OECD 국가별 해외출생(foreign-born) 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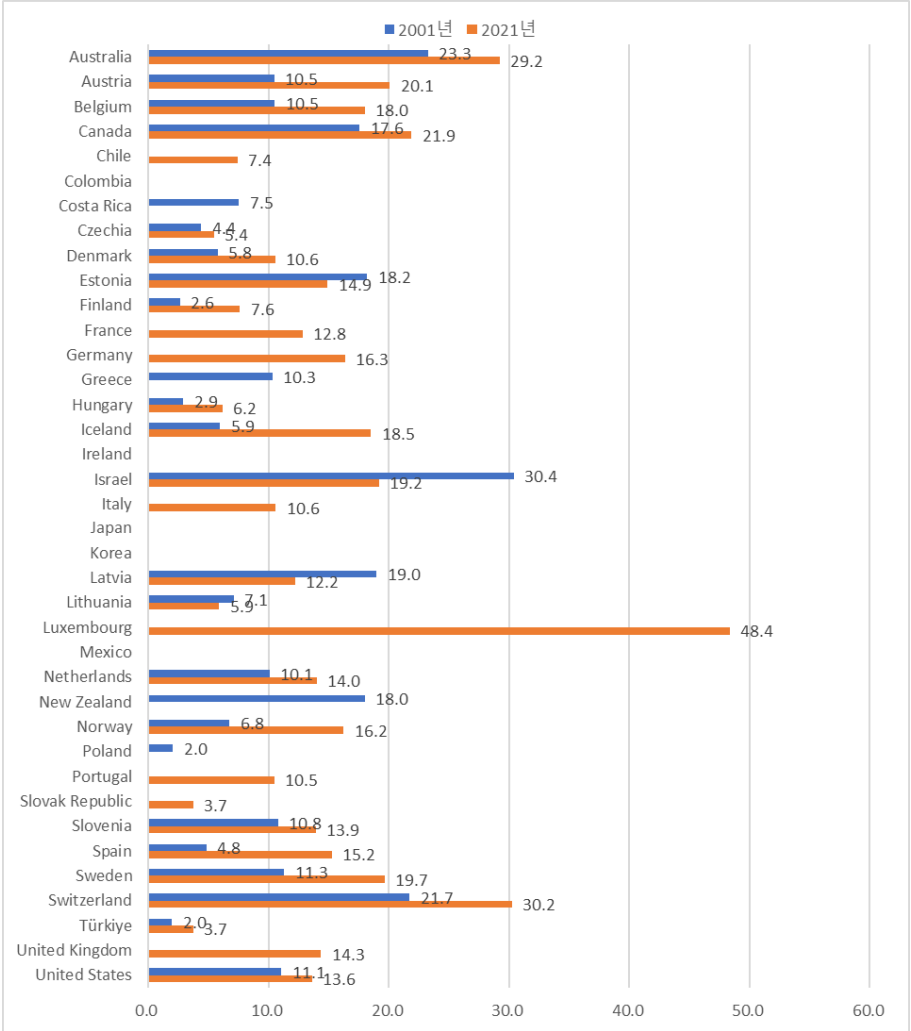
	해외출생 인구 수		연평균 증감률	
	2001	2021	2001~2011	2011~2021
Australia	4,482.1	7,502.5	3.0	2.2
Austria	843.0	1,797.6	4.4	3.3
Belgium	1,080.8	2,079.8	4.2	2.5
Canada	5,448.5	8,361.5	2.2	2.1
Chile		1,460.0		14.7
Colombia				
Costa Rica	296.7		2.3	
Czechia	448.5	570.1	5.2	-2.6
Denmark	308.7	617.8	3.3	3.7
Estonia	252.7	198.2	-1.7	-0.7
Finland	136.2	420.8	6.2	5.4
France		8,670.9		1.6
Germany		13,592.0		2.6
Greece	1,122.9		-3.9	
Hungary	294.6	597.6	4.1	3.1
Iceland	16.9	68.9	7.4	7.1
Ireland				
Israel	1,958.0	1,797.3	-0.5	-0.4
Italy		6,262.2		0.8
Japan				
Korea				
Latvia	443.8	230.1	-3.7	-2.7
Lithuania	246.5	165.2	-1.7	-2.3
Luxembourg		309.6		4.2
Mexico				
Netherlands	1,615.4	2,451.2	1.5	2.8
New Zealand	698.6			
Norway	305.0	878.2	6.4	4.4
Poland	776.2		-1.4	
Portugal		1,089.0		2.2
Slovak Republic		201.9		3.3
Slovenia	214.9	292.8	0.6	2.5
Spain	1,969.3	7,214.9	12.3	1.4
Sweden	1,003.8	2,046.7	3.3	4.0
Switzerland	1,570.8	2,630.4	2.8	2.4
Türkiye	1,278.7	3,141.4		
United Kingdom		9,614.0		2.6
United States	31,548.1	45,272.9	2.5	1.1

자료: OECD Data Explorer.

[그림 2]는 국가별 총인구 대비 해외출생 인구 비중을 비교한 것으로, 외국인 비중과 유사하게 대부분 국가에서 과거에 비해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 OECD 국가별 총인구 대비 해외출생(foreign-born) 인구 비중

(단위 : %)



자료 : OECD Data Explorer.

앞에서 외국인과 해외출생 인구 규모의 변화는 이민자를 저장(stock) 개념으로 보았는데, 여기서는 유량(flow)으로 살펴보자. <표 3>은 국가별 이민자 유입 규모를 5년 단위로 보여주고 있다. 독일은 매년 유입되는 이민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2006년엔 약 60만 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약 170만 명, 2019년에는 약 13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미국은 2006년 약 130만 명 수준으로 유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민자 유입 정책의 변화를 겪으면서 유입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반면,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2010년대 초반 유입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후반에는 유입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은 연간 유입 규모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표 3〉 OECD 국가별 외국인 유입 추이(inflows of foreign population)

(단위: 천 명, %)

	외국인 유입 인구				연평균 증감률		
	2011	2016	2019	2021	2011~2016	2016~2019	2019~2021
Australia	206	218	156	154	1.1	-10.7	-0.6
Austria	110	159	135	140	7.6	-5.3	1.7
Belgium	134	106	129	122	-4.5	6.9	-2.8
Canada	249	297	341	406	3.6	4.8	9.1
Chile	51	135	254	77	21.7	23.3	-45.1
Colombia		8	226	41		200.8	-57.6
Costa Rica		7	8			5.6	
Czechia	21	35	63	67	11.0	22.1	3.1
Denmark	35	55	42	47	9.6	-8.2	5.8
Estonia	2	8	11	12	35.6	12.5	6.7
Finland	20	27	24	28	6.0	-3.9	7.7
France	142	244	268	250	11.4	3.3	-3.4
Germany	842	1,719	1,346	1,140	15.4	-7.8	-8.0
Greece	23	86	95	29	30.0	3.5	-45.1
Hungary	23	24	55	49	1.1	32.4	-5.8
Iceland	3	8	10	9	23.3	6.7	-5.4
Ireland	34	54	62	35	9.8	4.6	-24.7

	외국인 유입 인구				연평균 증감률		
	2011	2016	2019	2021	2011~ 2016	2016~ 2019	2019~ 2021
Israel	17	26	33	25	9.0	8.6	-12.4
Italy	354	263	265	244	-5.8	0.2	-4.0
Japan	267	428	592	80	9.9	11.5	-63.2
Korea	307	402	438	221	5.5	2.9	-29.1
Latvia	3	3	7	6	3.8	24.2	-1.3
Lithuania	2	6	20	21	28.9	48.9	3.7
Luxembourg	19	22	25	24	2.4	5.3	-2.8
Mexico	22	36	41	68	10.3	4.1	29.3
Netherlands	118	182	215	208	9.0	5.7	-1.7
New Zealand	72	104	125	28	7.7	6.2	-52.5
Norway	71	59	45	47	-3.7	-8.7	2.3
Poland	41	107	163	224	21.0	15.1	17.2
Portugal	45	47	129	111	0.7	40.1	-7.2
Slovak Republic	4	4	2	2	-0.8	-11.7	-10.3
Slovenia	11	14	28	20	5.0	26.1	-15.5
Spain	336	352	666	457	1.0	23.7	-17.2
Sweden	76	143	98	75	13.5	-11.8	-12.8
Switzerland	142	143	141	142	0.1	-0.6	0.4
Türkiye		274	578	615		28.3	3.1
United Kingdom	453	455	507		0.1	3.7	
United States	1,062	1,184	1,032	740	2.2	-4.5	-15.3

자료 : OECD Data Explorer.

〈표 4〉는 OECD 국가 중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이민자 유입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본 것이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유입되는 이민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5% 이내 수준이며, 절반 이상이 25~54세의 핵심생산연령층에 해당한다. 특히, 이민자 유입이 많은 독일은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9%에 불과하며, 프랑스도 2.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65세 이상 비중이 각각 5.3%, 5.6%이며, 폴란드도 5.3%로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층 비중이 큰 편에 속한다.

〈표 4〉 OECD 유럽 국가별 이민자(immigration)의 연령별 분포

(단위 : %)

	15~24세			25~54세			55~64세		
	2001	2011	2019	2001	2011	2019	2001	2011	2019
Belgium			19.5			56.8			3.7
Czechia		16.6	14.2		66.6	70.0		4.1	3.5
Denmark	32.2	30.3	29.0	45.2	51.7	52.9	2.7	2.4	3.1
Estonia	11.2	12.8	14.2	30.3	61.9	63.3	4.1	6.2	9.7
Finland		20.2	16.8		55.0	59.1		3.8	3.4
France		28.4	26.9		47.3	46.4		4.0	4.1
Germany	28.0	23.1	21.8	53.9	58.0	57.2	3.6	3.9	4.4
Iceland		23.0	20.6		52.8	64.3		3.4	3.3
Italy	20.6	18.5	17.4	55.2	60.2	54.5	4.4	5.1	7.3
Latvia	12.1	12.4	14.0	52.0	59.7	61.7	8.9	10.0	7.4
Lithuania			13.0			71.0			6.6
Luxembourg			16.4			61.4			4.5
Netherlands	25.5	26.3	24.7	51.0	53.9	56.8	2.8	3.0	3.2
Norway	25.6	20.1	15.1	49.0	60.9	62.5	3.0	2.4	2.6
Poland		11.9	8.1		66.3	52.5		6.9	6.3
Portugal		23.5	10.1		53.9	42.2		6.5	12.5
Slovakia	13.8		6.9	53.9		35.0	11.0		4.5
Spain	20.4	21.1	19.0	56.5	52.4	54.8	4.5	6.4	6.5
Sweden	20.0	22.1	20.3	52.3	54.3	54.0	4.0	3.4	2.9
Switzerland	21.2	19.8	18.4	58.0	61.0	61.6	2.6	3.7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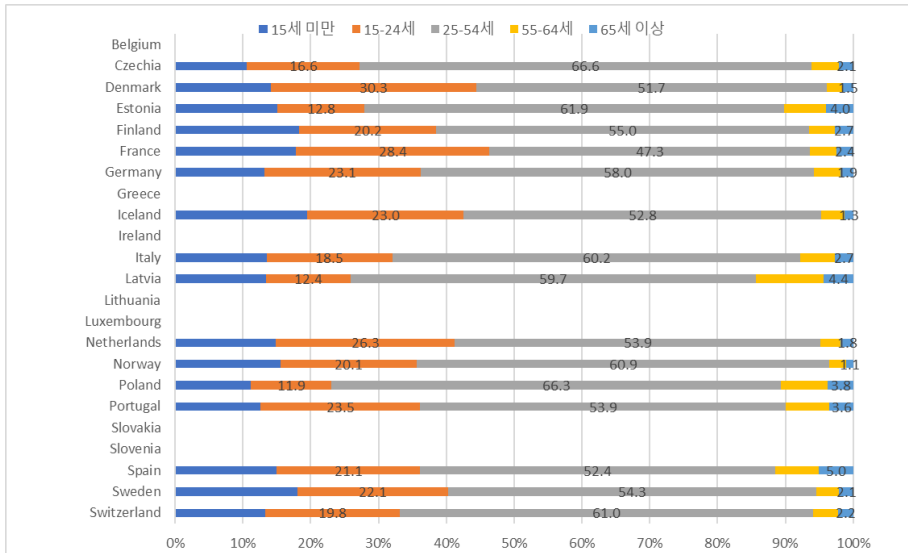
자료 : Eurostat.

국가별로 유입 이민자의 연령별 분포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2011년과 2019년의 분포를 [그림 4], [그림 4]에 표시하였다. 저량 개념의 외국인과 해외출생 인구 추이, 유량 개념의 외국인 유입 추이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독일, 스웨덴 등 이민에 적극적인 국가는 이민자 규모, 유입 규모 모두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후발 이민 국가였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2000년 초반에 비해 이민자 규모, 유입 모두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발트 3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른 특징으로는 국가별로 이민자 중 여성 비중이 크게 차이 나는 특성을 보이며, 연령별로는 동유럽 국가 등 일부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 국가에서 출생지와 관계없이 고령층 비중이 10% 이상으로 이민자의 고령화도 공통 추세로 나타난다. 다만, 이주의 주목적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유입되는 이민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여전히 25~54세의 핵심 생산 연령층 중심이며 고령자 비중은 적게 나타난다.

[그림 4] OECD 유럽 국가별 이민자(immigration)의 연령별 분포(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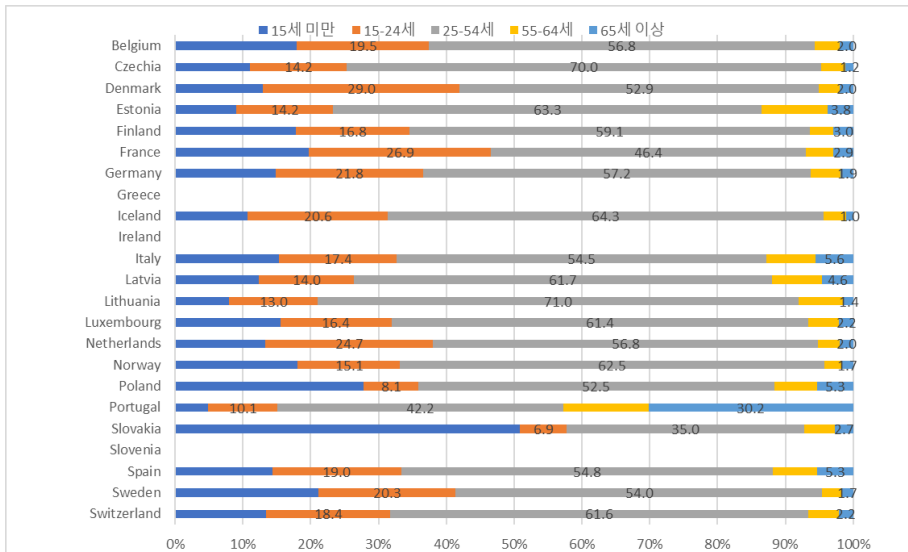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Eurostat.

[그림 4] OECD 유럽 국가별 이민자(immigration)의 연령별 분포(2019년)

(단위 : %)



자료 : Eurostat.

제2절 이민자와 선주민의 노동시장 비교분석

1. 경제활동참가율

이 절에서는 이민자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된 초점은 선주민(native-born)과 이민자, 여기서는 해외출생자(foreign-born) 간 주요 고용지표의 비교이다. 먼저, 선주민과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 2-7>에서 볼 수 있다. 국가별로 이민자보다 선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나타나는 등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민자 수용에 적극적인 국가인 호주, 독일, 스웨덴 등은 이민자보다 선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며, 반대로 일부 동유럽 국가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독일은 이민자와 선주민보다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더 커지는 대표적인 국가이며 전통적인 이민국가인 미국은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주민보다 높다.

<표 5> OECD 국가별 선주민과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전체)

(단위 : %p)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선주민-이민자) : 전체				
	2010	2013	2016	2019	2022
Australia	4.7	3.6	3.6	3.4	0.6
Austria	3.4	3.9	4.2	2.5	1.3
Belgium	4.3	4.6	4.2	4.4	3.2
Canada	2	1.5	0.7	1.2	-0.1
Chile		-14.4			-15.1
Colombia				-6.5	
Costa Rica				-7.7	-7.5
Czechia	-3.2	-3.4	-3.6	-5.1	-6.3
Denmark	6.3	7.2	5.3	8.3	2.2
Estonia	-3.4	-2	-0.4	-0.8	-0.1
Finland	-0.5	0.8	5.1	5.8	0.6
France	3.2	3.7	5.8	4.5	4.6
Germany	4.1	4	6.1	5.3	7.1
Greece	-9.1	-10.2	-10.2	-6.7	-6.3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선주민-이민자) : 전체				
	2010	2013	2016	2019	2022
Hungary	-8.5	-10.7	-8.3	-7.2	-7.1
Iceland	-1.9	-1.8	-1	0.9	-2.6
Ireland	-2.3	-2.6	-1.6	-3.5	-5.8
Israel		-10.3	-12.4	-12.6	
Italy	-8.7	-7.2	-5.4	-5.8	-5.1
Japan					
Korea					
Latvia				1.7	2.7
Lithuania				1.9	1.5
Luxembourg	-12.4	-14.4	-10.8	-11.8	-10.4
Mexico	10.4	6.1	6	8.4	
Netherlands	9.4	10	12	11.9	12
New Zealand	5.1	2.3	1.2	0.3	-3.6
Norway	3.2	2.3	1.6	3.7	3.3
Poland	8.3	-0.5	-1	-9	-6.1
Portugal	-8	-7.7	-8.2	-8.7	-8.6
Slovak Republic	4.7	-4.6	2.9	-9.1	-6.6
Slovenia	-0.8	-1.1	1.5	3.3	2.4
Spain	-7.5	-5.5	-4.4	-4.4	-4.4
Sweden	7.1	7.3	6.3	6.6	2.2
Switzerland	2.2	1.6	2.2	1.8	3.3
Türkiye	-5	2	6.9	6.9	
United Kingdom	2.9	2.8	1.5	0.2	-1.4
United States	-2.7	-2.3	-1.7	-1.9	-3

자료 : OECD Data Explorer.

〈표 6〉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전체 추세와는 달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 않으며 특히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보다 격차가 더 커 여성 이민자의 경제활동 참가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6〉 OECD 국가별 선주민과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여성)

(단위 : %p)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선주민-이민자) : 여성				
	2010	2013	2016	2019	2022
Australia	7.6	6.6	7.6	6.6	4.1
Austria	5.7	7.7	7.7	4.8	4.9
Belgium	8.7	10.2	9.4	9.2	8.5
Canada	5.2	4.6	4.8	4.6	2.8
Chile		-18.3			-16
Colombia				-4.5	
Costa Rica				-8.8	-5.9
Czechia	-0.6	0.4	-0.9	-3.6	-3.6
Denmark	8.1	8.5	7.7	12.3	4.1
Estonia	-3.8	-2.4	1.5	-0.5	4.6
Finland	5.8	5.1	10.2	10.5	4.1
France	8	10.3	11.3	10.6	10.1
Germany	10.1	9.3	11.2	11	13.6
Greece	-5.2	-6.9	-6.6	-2.6	-3.3
Hungary	-10.9	-8.5	-6.8	-10.9	-7.1
Iceland	-2.1	-1.1	-1.3	2.2	-2.2
Ireland	-0.4	-0.8	1.1	-1.6	-4.4
Israel		-12	-14.8	-13.9	
Italy	-6.8	-7.3	-4.1	-3.2	-1.3
Japan					
Korea					
Latvia				2.9	6.3
Lithuania				2.9	3.5
Luxembourg	-11.5	-12.1	-9.3	-10.6	-9.5
Mexico	11.9	5.5	5.5	6.9	
Netherlands	11.5	13.1	14.6	14.5	15
New Zealand	7.5	4.1	3.7	2.8	-1.4
Norway	5.7	5.5	5.7	6.8	6.5
Poland	9.8	-0.4	-0.2	-6.7	-3.8
Portugal	-8.8	-8.7	-8.7	-8	-7.7
Slovak Republic	14.6	-4.5	1	-8.3	-5
Slovenia	1.2	4.7	5.6	11.7	8.9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선주민-이민자) : 여성				
	2010	2013	2016	2019	2022
Spain	-8.5	-5.7	-3.5	-2.5	-2.6
Sweden	11.1	11.6	10.3	11.7	6.2
Switzerland	4.8	4.7	6.1	5.5	7
Türkiye	-2.9	-4.8	6.8	7.7	
United Kingdom	6.7	6.6	5.7	4.1	0.8
United States	4.6	4.9	5.9	5.4	4

자료 : OECD Data Explorer.

2. 고용률

〈표 7〉은 선주민과 이민자의 고용률 격차를 나타낸다.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민자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그룹과 낮은 그룹들이 상존한다.

〈표 7〉 OECD 국가별 선주민과 이민자의 고용률 격차(전체)

(단위 : %p)

	고용률 격차(선주민-이민자) : 전체				
	2010	2013	2016	2019	2022
Australia	4.7	3.6	3.4	3.4	0.3
Austria	6.6	7.6	8.8	6	5.1
Belgium	10.6	10.9	10	8.2	6.4
Canada	3.4	2.4	1.1	1.7	0.6
Chile		-16.1			-15.1
Colombia				-2.7	
Costa Rica				-6.3	-7.6
Czechia	-3.2	-2.1	-1.9	-4.2	-5.8
Denmark	11	11	9.5	10.6	4.8
Estonia	2.1	0.1	1.5	0.8	1.9
Finland	3.7	5.8	11	9.4	4.4
France	7	8.2	10.3	7.7	7.6
Germany	6.9	6.2	8.2	7.4	9.1

	고용률 격차(선주민-이민자) : 전체				
	2010	2013	2016	2019	2022
Greece	-5	1.3	-1.8	3.5	-0.2
Hungary	-10.3	-9.9	-7.4	-7.5	-6.5
Iceland	3.7	1.3	0	1.9	0.4
Ireland	0.4	0	-0.3	-2.6	-5.1
Israel		-11.1	-12.7	-12.6	
Italy	-5.6	-2.9	-2.3	-2.7	-2.6
Japan					
Korea					
Latvia				2	3.3
Lithuania				1.1	3.3
Luxembourg	-9.7	-11.2	-7.2	-9.1	-9.4
Mexico	10.4	6.9	6.1	9.1	
Netherlands	12	14.3	14.9	13.7	13.7
New Zealand	5.4	1.9	0.8	-0.5	-4.4
Norway	6.7	6	6	7	5.8
Poland	8.6	0.8	1.9	-6.8	-3.8
Portugal	-3.9	-2.2	-5.7	-6.5	-6.7
Slovak Republic	2.3	-6.6	0.2	-10.4	-7
Slovenia	1	3	3.8	4.3	3.9
Spain	3.9	4.9	2.3	0.7	1.2
Sweden	13.2	14.3	14.4	14.9	11.3
Switzerland	5.7	5.3	6.3	5.1	6.4
Türkiye	-3.3	3	6.9	6.3	
United Kingdom	2.8	3.6	2	0.6	-0.3
United States	-2.4	-2.7	-2.1	-2.4	-3.2

자료 : OECD Data Explorer.

이민자 수용에 적극적인 국가인 호주, 캐나다, 독일, 스웨덴과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이민자의 고용률이 선주민보다 낮다. 특히, 독일의 경우 선주민과 이민자의 고용률 격차가 과거에 비해 더 커지는 추세를 보인다. 여성 고용률 격차를 보면 이민자보다 선주민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2022년 격차는 약 15.4%p에 이른다.

〈표 8〉 OECD 국가별 선주민과 이민자의 고용률 격차(여성)

(단위 : %p)

	고용률 격차(선주민-이민자) : 여성				
	2010	2013	2016	2019	2022
Australia	7.8	6.6	7.9	7.3	4.4
Austria	8.1	10.4	11.3	8.2	8.6
Belgium	13.7	14.4	14.1	12.7	11.3
Canada	7	5.9	5.9	5.8	4
Chile		-20.1			-14.7
Colombia				1.7	
Costa Rica				-6	-5.1
Czechia	0.1	1.2	1.2	-1.6	-3.4
Denmark	12.1	12.6	12.4	14.4	6.5
Estonia	3.1	-0.2	3.1	0.8	8.2
Finland	7.3	10.2	16.9	14.8	8.6
France	11.1	13.8	14.9	13.5	13.1
Germany	11.9	11	12.7	12.4	15.4
Greece	-3.4	0.5	-0.4	6.9	5.3
Hungary	-12	-5.8	-5.4	-11.1	-6
Iceland	1.7	1.6	-1.8	2.9	0.5
Ireland	2.2	2.3	2.7	-0.3	-2.6
Israel		-13.6	-15.4	-14.1	
Italy	-3.8	-3.3	-0.8	0.3	1.8
Japan					
Korea					
Latvia				3.2	8
Lithuania				3.1	5.8
Luxembourg	-9	-8.4	-5.6	-8.1	-8.2
Mexico	11.7	6	5.2	7.5	
Netherlands	14	16.8	17.4	16.6	16.9
New Zealand	7.6	3.7	3.2	2.3	-2.3
Norway	8.3	9.4	10.1	9.8	8.9
Poland	9.2	5.7	4.7	-4.4	-0.6
Portugal	-3.7	-3.7	-5.9	-4.5	-4.8
Slovak Republic	13.5	-7.2	0.2	-6.7	-6
Slovenia	3	11.4	8.3	12.9	11.2
Spain	-0.5	2.3	2.5	2.5	3.6
Sweden	16.9	17.4	17.5	20	16
Switzerland	8.5	8.5	10.2	9.1	10.5
Türkiye	-1.7	-3.9	5.6	6.2	
United Kingdom	7.3	8.1	7	5	2.5
United States	4.8	4.8	5.7	5.2	3.8

자료 : OECD Data Explorer.

선주민과 이민자의 고용률 격차를 학력별로 나누어 보면, 저학력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이민자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는 이민자의 고용률이 선주민에 비해 약 30%p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민자 유입이 많은 국가들은 저학력 이민자의 고용률이 선주민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그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9〉 OECD 국가별 선주민과 이민자의 고용률 격차(저학력)

(단위 : %p)

	고용률 격차(선주민-이민자) : 저학력				
	2015	2016	2019	2021	2022
Australia					
Austria	2.5	5.4	-0.2	-5.9	-6.1
Belgium	7	5.7	6.6	-4.7	-7.8
Canada				1.2	2.3
Chile	-19.1			-12.5	
Colombia					
Costa Rica					
Czechia	-11.5	-8.5	-9.4	-37.4	-35
Denmark	13.4	11.7	7.3	-3.6	-6.6
Estonia	11.6	6.6	-1.7	-11.1	-11.8
Finland	-0.3	-2.7	4.6	-6.6	-7.8
France	5.4	5.9	2.6	-13.2	-13.9
Germany	-0.5	1.9	1.6	-6.9	-6.3
Greece	-10.9	-14.2	-6.7	-12.9	-19.2
Hungary	-9.2	-15.7	-18.9	-29	-18.7
Iceland	-3.8	-12	-0.3	-8.7	-6.1
Ireland	0.1	0.7	-2	2.6	-9.2
Israel	-21.5	-42.4	-21.1	-23.9	
Italy	-10.4	-10.5	-11.8	-14.7	-15.8
Japan					
Korea					
Latvia	8.5	6.4	31.8	-8.1	-6.2
Lithuania		-6.8	-2	-9.9	
Luxembourg	-10	-9.6	-11.6	-23.3	-21.1
Mexico	0	-4.2	-4.5	-4.5	0
Netherlands	14.3	17.2	16.9	15.4	15.2
New Zealand	4.1	5.6	0	5.5	0
Norway	10.4	6.5	8.5	3.4	-0.1
Poland					
Portugal	-2.7	-2.5	-8.4	-11.9	-11.5

	고용률 격차(선주민-이민자) : 저학력				
	2015	2016	2019	2021	2022
Slovak Republic					
Slovenia	-0.3	-9.4	-6.4	-12	-16.2
Spain	-1	-0.7	-5.4	-4.3	-7.1
Sweden	18.9	16.8	16.9	-1.1	-3.5
Switzerland	-2.2	-0.6	-6	-8.8	-8.9
Türkiye	11.9				
United Kingdom	5.7	5.7	1	-11.9	-16.1
United States	-19.6	-18.6	-17.6	-29.9	-30.7

자료 : OECD Data Explorer.

반대로, 고학력자의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이민자보다 선주민이 높게 나타난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고학력 선주민의 고용률이 이민자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인다.

〈표 10〉 OECD 국가별 선주민과 이민자의 고용률 격차(고학력)

(단위 : %p)

	고용률 격차(선주민-이민자) : 고학력				
	2015	2016	2019	2021	2022
Australia					
Austria	12.2	13.1	10.9	9.1	7.4
Belgium	13.5	14	13.5	8.2	6.1
Canada				2.7	2.6
Chile	-4.5			-2.9	
Colombia					
Costa Rica					
Czechia	3	-0.4	2.4	2.8	1.2
Denmark	12.5	10.4	8.7	-0.9	-5.2
Estonia	11.9	11	6.3	14	11
Finland	18	12.7	10.7	6.4	6.6
France	12.9	15.1	14.6	11	12.5
Germany	12	12.2	11.4	12.2	12.5
Greece	13.1	14.6	21.8	14.2	7.9
Hungary	2.6	-2	-1.5	3.1	4.5
Iceland	7.3	3.7	2.1	9.9	3.5
Ireland	8	7.1	5.7	1.1	1.1
Israel	3	22.6	3	2.4	0
Italy	10.4	13.2	12.5	14	11.6
Japan					

	고용률 격차(선주민-이민자) : 고학력				
	2015	2016	2019	2021	2022
Korea					
Latvia	13.5	15.2	8.9	8.8	14.2
Lithuania	9.2	6.9	7.9	9.2	7.7
Luxembourg	4	4.5	3	0.6	0.1
Mexico		5	8.5	8.5	
Netherlands	9.8	8.9	12.1	12	8.9
New Zealand	5.3	6.2	0	3	3
Norway	9.9	10.8	6.7	8.1	7.4
Poland	9.2	11.6	7.9	1.3	6.6
Portugal	3.2	4	7.2	-5.1	-3.3
Slovak Republic	6.7	3.4	2.9	0.8	1.3
Slovenia	10.5	7	8.5	7.2	7.5
Spain	13.2	10.9	12.3	11	8.2
Sweden	14.1	14.2	12.1	10.2	8.1
Switzerland	9	8.7	8	8.1	8.5
Türkiye	16.1				
United Kingdom	4.7	5	4.5	2	1.1
United States	4.9	4.5	4.7	3.7	3.4

자료 : OECD Data Explorer.

저학력 이민자의 경우 이주의 목적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대부분 국가에서 저숙련 일자리에 이민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저학력 이민자의 고용률이 선주민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학력자의 경우 전문인력 유치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고용률이 선주민에 비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추론하기가 어려우나 고학력 시장에서 이민자가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실업률

〈표 2-13〉은 선주민과 이민자의 실업률 격차를 나타낸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선주민보다 이민자의 실업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다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앞선 두 개의 지표와 마찬가지로 실업률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표 11〉 OECD 국가별 선주민과 이민자의 실업률 격차(전체)

(단위 : %p)

	실업률 격차(선주민-이민자) : 전체				
	2010	2013	2016	2019	2022
Australia	-0.3	-0.2	-0.2	-0.3	0.3
Austria	-4.5	-5.4	-6.7	-4.8	-4.9
Belgium	-10.2	-10.4	-9.4	-6.1	-4.9
Canada	-2.1	-1.3	-0.7	-0.8	-0.9
Chile		3.6			1.6
Colombia				-3.9	
Costa Rica				-0.4	1.5
Czechia	0.2	-1.3	-2	-0.9	-0.4
Denmark	-6.9	-5.9	-5.9	-3.7	-3.4
Estonia	-6.4	-2.4	-2.3	-1.8	-2.5
Finland	-5.5	-6.8	-8.9	-5.4	-4.9
France	-5.9	-7.1	-7.5	-5.3	-4.7
Germany	-4.2	-3.3	-3.2	-3	-3
Greece	-3.9	-11.5	-7.7	-12.3	-7
Hungary	3.8	0.3	-0.7	0.8	-0.4
Iceland	-6.3	-3.5	-1.1	-1.2	-3.3
Ireland	-3.5	-3	-1.6	-1.1	-0.5
Israel		2	1.2	0.6	
Italy	-3.4	-5	-3.5	-3.5	-3.1
Japan					
Korea					
Latvia				-0.5	-1.1
Lithuania				0.9	-2.6
Luxembourg	-3.1	-3.4	-4.2	-2.6	-0.8
Mexico	-1.2	-1.8	-0.5	-1.7	
Netherlands	-4.2	-6.9	-5.2	-3	-2.7
New Zealand	-0.9	0.4	0.5	1	1.2
Norway	-4.8	-5	-5.8	-4.5	-3.3
Poland	-1.9	-1.8	-4	-2.4	-2.8
Portugal	-4	-5.3	-2	-1.9	-1.6
Slovak Republic	2.6	3.6	3.5	0	1
Slovenia	-2.4	-5.6	-3.4	-1.6	-2.1
Spain	-12.7	-11.5	-7.6	-5.8	-6.5
Sweden	-9.1	-9.9	-11	-11	-11.3
Switzerland	-4.4	-4.6	-5	-4.1	-3.9
Türkiye	-2	-2.2	-1.6	-0.7	
United Kingdom	0	-1.4	-0.7	-0.6	-1.4
United States	0.1	0.7	0.9	0.8	0.4

자료 : OECD Data Explorer.

여성 실업률 또한 선주민보다 이민자가 더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스웨덴, 그리스 등은 2022년 고용률 격차가 10%p 이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여성 이민자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2〉 OECD 국가별 선주민과 이민자의 실업률 격차(여성)

(단위 : %p)

	실업률 격차(선주민-이민자) : 여성				
	2010	2013	2016	2019	2022
Australia	-0.9	-0.5	-1.1	-1.4	-0.6
Austria	-4	-4.8	-6	-5.1	-5.6
Belgium	-10.2	-9.2	-9.5	-6.6	-5.2
Canada	-3.1	-2.2	-2	-1.9	-1.8
Chile		5			0.2
Colombia				-8.3	
Costa Rica				-2.2	0.4
Czechia	-1	-1.3	-2.9	-2.6	-0.2
Denmark	-6.4	-7	-7.3	-4.1	-3.3
Estonia	-8.8	-2.7	-2.4	-1.9	-5
Finland	-2.9	-8	-11.7	-7.4	-6.3
France	-6.4	-7.6	-8	-6.2	-5.8
Germany	-4	-3.4	-2.9	-2.6	-3.1
Greece	-1.5	-8.2	-6.7	-14.3	-12.7
Hungary	3.4	-2.7	-1.5	0.7	-1.1
Iceland	-4.5	-3.2	0	-0.9	-3
Ireland	-4	-4.7	-2.8	-1.9	-2.2
Israel		3.1	1.6	1	
Italy	-4.1	-5.1	-4.7	-5.1	-5.2
Japan					
Korea					
Latvia				-0.7	-2.9
Lithuania				-0.5	-3.4
Luxembourg	-3.2	-4.7	-4.7	-2.9	-1.2
Mexico	-1.2	-1.7	0.2	-1.9	
Netherlands	-4.7	-7.2	-5.8	-3.8	-3.3
New Zealand	-0.8	0	0.6	0.5	1.1
Norway	-4	-5.7	-6.5	-4.5	-3.6
Poland	-0.9	-9.9	-7.9	-3	-4.4
Portugal	-5.2	-4.5	-2.3	-3.6	-2.8
Slovak Republic	-2.1	0	0	0	1.7

	실업률 격차(선주민-이민자) : 여성				
	2010	2013	2016	2019	2022
Slovenia	-2.9	-11.3	-5.1	-2.7	-4
Spain	-8.8	-8.9	-7.4	-6.5	-8.1
Sweden	-9.8	-9.4	-10.6	-12.1	-13.1
Switzerland	-5.3	-5.3	-5.7	-4.8	-5
Türkiye	-2.5	-1.1	0.7	0.7	
United Kingdom	-1.7	-3.1	-2.2	-1.6	-2.3
United States	-0.8	-0.4	-0.3	0	0

자료 : OECD Data Explorer.

4. 한국의 이민자 경제활동실태

이민자의 경제활동실태에 대한 정보는 통계청에서 2012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나타나 있다.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15세 이상이면서 91일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인 상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체류자격 입국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동 조사는 2012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기존에는 등록외국인이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2017년부터 시계열 자료가 비교 가능하다.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모집단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내외국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모수추정이 어려워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이민자 특성을 고려할 때 과소 추정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체 조사대상에서 내국인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경찰조사는 내국인 조사결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은 2017~2023년 기간 중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경제활동실태를 분석한 결과로 크게 다음의 특징이 있다. 첫째, 표에서 보듯이 상주외국인과 경찰조사의 고용률 편차가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조사의 고용률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상주외국인의 경우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7년이나 2018년에 비해 3~4%p 하락하였다. 이는 주로 방문취업자의 고용률 하락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고용률 정체에 기인한다. 이 기간 중 방문취업자의 고용률은 2017년 82.7%에서 2023년 72.6%로 10.0%p 하락하였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자의 고용률은 같은 기간 65.6%에서 64.7%로 0.6%p 하락하였다.

둘째, 코로나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따른 고용사정의 악화는 이민자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경기하강시 정주형 이민자의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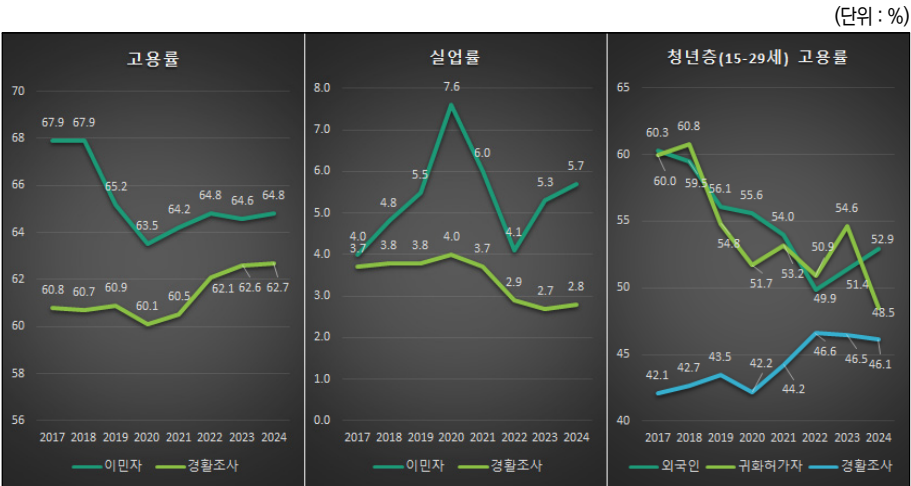
셋째, 이민자의 실업률이 경찰조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 시기에 는 이보다 훨씬 높았고 추세적으로 약간 상승추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13〉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경제활동 실태 비교

		(단위 : 천 명, %)							
	항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활동 인구조사	15세 이상 인구	43,931	44,182	44,504	44,785	45,080	45,260	45,407	
	취업자	26,725	26,822	27,122	26,904	27,273	28,089	28,416	
	실업자	1,023	1,073	1,063	1,108	1,037	833	787	
	경제활동참가율	63.2	63.1	63.3	62.5	62.8	63.9	64.3	
	고용률	60.8	60.7	60.9	60.1	60.5	62.1	62.6	
	실업률	3.7	3.8	3.8	4.0	3.7	2.9	2.7	
상주 외국인	15세 이상 인구	1,225	1,300	1,323	1,332	1,331	1,302	1,430	
	취업자	834	884	863	848	855	843	923	
	실업자	34.5	44.8	50.3	69.5	54.3	36.8	52.3	
	경제활동참가율	70.9	71.4	69.1	68.9	68.3	67.6	68.2	
	고용률	68.1	68	65.3	63.7	64.2	64.8	64.5	
	실업률	4.0	4.8	5.5	7.6	6.0	4.2	5.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그림 5] 이민자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표 14〉 이민자 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p)

		2017	2023	증감 (2017~2023)
전 체 (경찰)	전 체	60.8	62.6	1.8
	15~29세	42.1	46.5	4.4
	30~39세	75.3	78.9	3.6
	40~49세	79.4	78.6	-0.8
	50~59세	75.3	77.7	2.4
	60세 이상	39.9	45.5	5.6
이민자	전 체	67.9	64.6	-3.3
	15~29세	60.2	51.5	-8.7
	30~39세	77.5	77.4	-0.1
	40~49세	78.4	77.1	-1.3
	50~59세	69.4	69.1	-0.3
	60세 이상	45.6	46.0	0.4
- 외국인	전 체	68.1	64.5	-3.6
	15~29세	60.3	51.4	-8.9
	30~39세	78.1	77.8	-0.3
	40~49세	78.7	77.1	-1.6
	50~59세	69.2	68.8	-0.4
	60세 이상	45.9	45.9	0.0
- 귀화허가자	전 체	64.1	67.4	3.3
	15~29세	60.0	54.6	-5.4
	30~39세	66.8	70.1	3.3
	40~49세	71.3	78.9	7.6
	50~59세	73.3	79.6	6.3
	60세 이상	40.5	52.9	12.4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민자의 청년층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에 비해 더 하락하고 있다. 〈표 14〉는 경찰조사의 청년층 고용률과 이민자의 청년층 고용률을 2017년과 2023년 두 시점을 비교한 결과이다. 경찰조사 청년층 고용률은 2017년 42.1%에서 2023년 46.5%로 1.8%p 상승한데 비해 외국인 청년층 고용률은 같은 기간 60.3%에서 51.5%로 8.7%p 하락하였으며 귀화자 청년층의 고용률은 60.0%에서 2023년 54.6%로 5.4%p 하락하였다. 이민자의 고용률을 체류자격별로 보면 방문취업 청년층 고용률은 2017년 79.5%에서 2023년 57.7%로 21.8%p 하락하였으며 재외동포 청년층 고용률은 같은 기간 68.0%에서 61.1%로 6.9%p 하락하였고 영주자 청년층 고용률은 61.7%에서 49.7%로 12.0%p 하락하였다. 이민자

청년층 고용률 하락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자료가 없어서 추론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청년층의 노동시장 적응이 선주민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통계자료를 통해 이민수용국들의 인구변동과 경제활동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유입증가가 높은 국가일수록 인구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민정책이 인구정책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이지만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는 선주민들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 이민자도 고령화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다만 이민수용이 적극적인 국가 중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 고령화율이 둔화되고 있는 점이 엿보이나 이 문제는 이민자의 출생률을 높이거나 이민자 유입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힌다.

셋째, 이민자 유입과 선주민의 경제활동간의 관계는 단순히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본 연구에서의 관심은 선주민과 이민자간 고용성과의 차이이다. 고용률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민자 유입규모가 크고 경제가 발전할 국가일수록 선주민의 고용률이 이민자보다 더 높다. 이러한 국가들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이 해당된다. 독일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다만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남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이민자들의 고용률이 선주민보다 더 높으며 영국도 2022년에는 이민자들의 고용률이 선주민보다 더 높다.

넷째, 고용률 격차를 학력별로 보면 저학력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이민자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는 이민자의 고용률이 선주민에 비해 약 30%p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민자 유입이 많은 국가들은 저학력 이민자의 고용률이 선주민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그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고학력자의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이민자보다 선주민이 높게 나타난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고학력 선주민의 고용률이 이민자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인다.

다섯째,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선주민보다 이민자의 실업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다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앞선 두 개의 지표와 마찬가지로 실업률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OECD 국가 비교를 위해 이용한 자료에 우리나라 자료는 없지만,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민자의 고용률이 선주민보다 높지만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민자의 실업률은 선주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실업률은 OECD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고용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취업목적의 이주인이 많은 이유로 이민자의 고용률이 높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선주민과의 고용률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서 정주형 이민자가 증가할 경우 OECD국가의 추세적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이민자 유입정책은 인구유입의 증가, 인력 부족 해소 나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만 이민자의 저고용문제와 같은 노동시장 통합문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는 이민자의 선별정책과 한시적 순환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정주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the majority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white and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연콜로키움 25-01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제1차 콜로키움
: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인 쇄 2025년 4월 16일

발 행 2025년 4월 1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콜로키움25-01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제1차 콜로키움 :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